

여자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Body Image on the Clothes and Diet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김인화* · 임자영

한국폴리텍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Kim, In-Hwa* · Lim, Ja-Young

Dept. of Fashion Design, Korea Women's Polytechnic

Abstract

This study found that physical image affects behaviour of clothes, ready-to-wear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weight control targeting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people, who manage their appearance well, seeks esthetics and showing off, on the contrary, the person, who has not confidence of her body, pursues virtue. It was also found that people who have confidence in their body shape, and people who manage their appearance well are typically satisfied with ready-to-wear clothes, while people who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appearance, do not like ready-to-wear clothes. People who are concerned with appearance and who manages their appearance well, are typically worried about obesity, and they manages their weight control carefully. However, people who have confidence in their bodies and who do not manage their weight do not pay attention to weight control. Consequently, fit was also found that people with more confidence tend to do more exercise and more frequently visit saunas. The less they don't satisfied with their body, the more fast, dietary treatment, or weight control with the other ways.

Keywords : body image, clothing behavior, weight control

I. 서론

외모는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 중의 하나이다. 외모는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의 능력과 같은 다른 특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홍금희, 2006). 따라서 시대가 흐를수록 외모가 갖는 시각적 효과는 인간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

한 만족도는 감정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 계층,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대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일반에게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특히 TV는 대중매체 중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TV를 통해 등장한 얼굴과 몸매가 뛰어난 연예인들은 실력과는 별개로 막대한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어 이들은 몸이 하나의 사회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 Corresponding author: Kim, In-Hwa
Tel: 031-650-7286, Fax: 031-650-7285
E-mail: ihkim@kopo.ac.kr

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외모로 인간의 우월성을 가리고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생활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활동을 시작하게 되므로 외모를 치장할 줄 알게 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며, 유행을 선도하려는 의지와 자기만의 독특함을 창조하려고, 패션스타일에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외모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나 전반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의복의 사회 심리학적 역할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신주동, 최종명, 2008).

의복은 인간에게 신체보호적인 차원에서나 정신적, 심리적, 심미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왔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한층 촉구하게 되었으며, 의생활에 있어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맞춤복보다는 미리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즉석에서 신속하게 자신의 체형과 개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편리한 기성복을 선호하게 되었다(권수애, 김인화, 2005). 그러나 기성복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만큼 여러 치수를 생산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기성복에서 편안한 맞춤새를 얻기 위해서 의복을 구입할 때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보정하거나 수선을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권수애, 김인화, 2005).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 기성복만족·불만족,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업체에 소비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 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견해이며,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태도에 초점을 둔 심리적 경험으로서의 신체라고 정의하였으며(김광경 외, 2001),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 신체에 관한 정신적 표상으로서,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신체에 대한 기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김완석, 김혜진, 2005). 송경자, 김재숙(2005)은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인식된 체형이 더 중요하게 인지되며,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성이 높았고, 자신의 신체지각에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신체 만족도는 자아정체감이나 자기 존중과 같은 심리적 요인, 연령, 교육, 경제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 외에 의복에의 만족이나 다양한 의복 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조윤주, 이정란(2004)은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장,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모두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비만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편안한 의복과 개성을 추구한 반면, 날씬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패션기능을 추구하여 신체인지도에 따라 의복을 통한 혜택과 기능 추구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신체 이미지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로서,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 및 자신의 신체 각 부분과 기능에 대해 갖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를 말하는데,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선, 2003). 따라서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는 외모관심, 신체매력, 몸매관리, 운동능력의 4개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 중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하고 성적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그 시대적 배경에 맞는 사회적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어서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2.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관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강혜원, 1995), 의복을 통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관심, 태도, 가치관 및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의복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그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어 의복행동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복행동은 자기표현 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의복이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의복태도의 변인으로는 심리적 의존성,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 관리성, 안락성, 정숙성, 동조성 및 유행성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인(1980)은 여학생들이 외출시 사복 착용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복의 불편성 때문이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의복의 안락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의복행동

정숙성에 대한 연구에서 강혜원(1995)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도 중시하며,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정숙성과 동조성을 더 중시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이금실 외(2001)은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 연구에서 계층 간의 의복태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유행성, 심미성 및 정숙성으로 중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유행성과 심미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하류층은 정숙성을, 계층에 따른 의복태도는 중상류층이 동일한 행위유형을 나타내는 집단이라 하였다.

이금실 외(2001)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실용성을 가장 중시했으며,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실용성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리성을 실용성이라 명명하여 의복행동변인 중 실용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이 가정주부였고, 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복의 가격 및 관리적인 측면인 실용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의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동조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기성복 만족·불만족

기성복은 디자인과 치수가 여러 종류로 되어있어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사서 바로 입을 수 있으며,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므로 구입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권수애, 김인화(2005)는 중년 여성의 기

성복 재킷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둘레항목에 대한 불만족 요인보다 길이항목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둘레항목의 경우에는 가슴둘레나 허리 둘레에 비해 엉덩이 둘레의 치수가 약간 작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특히 중년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택에 있어서는 연령과 비만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의복의 기성복화에 있어서 많은 중년 소비자들이 기성복을 착용하지만 부족한 치수체계로 인한 부적합성과 무리한 수직분할과 착탈의 용이성만을 강조한 디자인의 획일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신체 이미지와 의복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신체 만족도(body-cathexis)와 의복행동의 여러 측면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고,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유행하는 의복을 선호하고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은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고 의복을 통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성적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였다(송경자, 김재숙, 2005). 이영윤(1982)은 중년기 여성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맞춤새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및 의복에 더 만족했고, 의복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했다. 송경자, 김재숙(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과시적인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의복행동에서는 비만한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으로 의복에 덜 의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복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체중조절 행동

체중조절의 본래 의미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체중을 늘

리는 것과 줄이는 것 모두를 포함하나 여성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체중조절 행동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행위와 관심도, 그리고 체중조절 신념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체중조절 신념은 체중조절이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가에 관한 기대 성향이다.

많은 여성이 체중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식사량의 조절과 운동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조선진, 1997).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과 날씬함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고 있고, 심지어 비만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외모적 손상으로 취급하는 경향까지 나타나 비만인 경우 뿐 아니라 정상체중인 경우에도 스스로 체중감량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의 대부분은 비만이 가져오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시도하기보다는 단지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김미옥, 장은재, 2009).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비만에 대한 경시로 변화되고, 사회 전반에 날씬함을 아름답고 동일시하고 자아통제, 우아함, 매력, 젊음 등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 비정상적인 식습관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미옥, 장은재(2009)도 연령별 비만에 대한 인식에서 10대 여고생과 20대 여성이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사춘기 소녀들과 여대생들이 자신의 현재 체중보다 마른 체중을 희망하고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보면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체중조절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권에 소재한 대학의 여자 대학생을 임의 표집으로 선정

하여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 32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설문지의 내용은 선행연구(이주영, 2003)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16문항, 의복행동에 관련된 문항은 박혜선, 김화순(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46문항, 차진희, 김재숙(1995)이 제시한 체중에 관련된 13문항, 기성복에 관련된 25문항(권수애, 김인화, 2005)을 5점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체중조절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α 계수를 구하였고,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 및 체중조절과 기성복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8~20세가 42.6%, 21~23세가 36.3%, 24~26세가 11.2%, 27세 이상은 9.9%로 나타났으며, 95.0%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37.0%), 2학년(47.5%), 3학년(6.9%), 4학년(8.6%)로 나타나 1, 2학년이 전체의 84.5%로 나타났다. 용돈은 10만원 미만(9.2%), 11~20만원 미만(8.3%), 21~30만원 미만(49.2%), 31~40만원 미만(16.8%), 41~50만원 미만(10.9%), 50만원 이상(5.6%)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보면 자연계열(37.3%)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계열(28.4%), 공학계열(19.3%), 인문·사회계열

(3.6%), 기타3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49.2%), 서울(29.7%), 인천(6.6%), 충남북(5.6%), 경남북(4.6%), 기타(4.3%)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78.9%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을 위해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3.2% 만이 있다고 답하였다.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운동(100.0%), 식이요법(80.9%), 여러 가지 병행(80.9%), 단식(71.8%), 사우나(4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조선진, 1997)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결과

1) 신체 이미지에 대한 요인 분석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 값이 1 이상인 것과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자신이 스스로 신체에 대해 만족하며, 성적 매력 있다고 느끼는 문항으로 ‘신체 자신감’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22.78%(고유값=5.08)를 설명하여, 신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도(%) | 구 분 | | 빈도(%) | 계(인원) |
|--------|------------|-----------|---------|----------|------------|-------|
| 연 령 | 18~20세 | 129(42.6) | 전 공 | 인문·사회계열 | 36(3.6) | 303 |
| | 21~23세 | 110(36.3) | | 자연계열 | 113(37.3) | |
| | 24~26세 | 34(11.2) | | 공학계열 | 58(19.1) | |
| | 27세 이상 | 30(9.9) | | 예체능계열 | 86(28.4) | |
| | | | | 기타 | 10(3.3) | |
| 결혼 여부 | 미혼 | 288(95.0) | 거주지 | 서울 | 90(29.7) | 303 |
| | 기혼 | 15(5.0) | | 경기도 | 149(49.2) | |
| 학 년 | 1학년 | 112(37.0) | | 인천 | 20(6.6) | |
| | 2학년 | 144(47.5) | | 충남북 | 17(5.6) | |
| | 3학년 | 21(6.9) | | 경남북 | 14(4.6) | |
| | 4학년 | 26(8.6) | 기타 | 13(4.3) | | |
| 용돈 (월) | 10만원 미만 | 28(9.2) | 체중조절 여부 | 있다 | 131(43.2) | 303 |
| | 11~20만원 미만 | 25(8.3) | | 없다 | 172(56.8) | |
| | 21~30만원 미만 | 149(49.2) | 체중조절 실태 | 운동 | 131(100.0) | 131 |
| | 31~40만원 미만 | 51(16.8) | | 단식 | 94(71.8) | |
| | 41~50만원 미만 | 33(10.9) | | 사우나 | 63(48.1) | |
| | 50만원 이상 | 17(5.6) | | 식이요법 | 106(80.9) | |
| | | | | 여러 가지 병행 | 106(80.9) | |

체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신체부위의 만족함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신체 만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은 22.57%(고유값=2.57)를 설명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항상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며 아름답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외모관리'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21.56%(고유값=1.72)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로 나타났다.

이들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3 요인의 총 설명력은 66.91%로 나타났다.

<표 2> 신체 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 요 인 | 측 정 문 항 | 요인 부하량 | 고유값 | 분산 (%) | 누적분산 (%) | 신뢰도 (α) |
|--------|--------------------------------------|--------|------|--------|----------|------------------|
| 신체 자신감 |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 .880 | 5.08 | 22.78 | 22.78 | 0.85 |
| |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 | .823 | | | | |
| |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 .772 | | | | |
|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느낄 것이다. | .764 | | | | |
| |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 .523 | | | | |
| 신체 만족 | 나는 배 돌레에 만족한다. | .898 | 2.57 | 22.57 | 45.35 | 0.90 |
| | 나는 내 허리돌레에 만족한다. | .888 | | | | |
| | 나는 내 체중에 만족한다. | .859 | | | | |
| | 나는 엉덩이돌레에 만족한다. | .774 | | | | |
| 외모 관리 |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한다. | .783 | 1.72 | 21.56 | 66.91 | 0.82 |
| |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 .771 | | | | |
| |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 .766 | | | | |
| | 나는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 .765 | | | | |
| | 나는 언제나 멋져 보여야 한다. | .665 | | | | |
| 계 | | | | | 66.91 | 0.86 |

2)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

의복행동에 대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미성, 과시성, 정숙성, 편안성, 동조성, 개성의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60.24%로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의복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심미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은 16.33%(고유값=5.59)를 설명하여 의복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의복에 대한 우월감과 과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서 '과시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12.38%(고유값=4.66)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의복의 정숙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정숙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9.87%(고유값=2.82)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1$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의복의 편안함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편안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7.90%(고유값=2.07)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3$ 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의복에 대하여 타인을 따라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동조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7.70%(고유값=1.61)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2$ 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의복에 대한 개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개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6.05%(고유값=1.32)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로 나타났다. 이들 의복태도를 구성하는 6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0.24%로 나타났다.

< 표 3 > 의복행동 요인분석 결과

| 요인 | 측정 문항 | 요인 부하량 | 고유값 | 분산 (%) | 누적분산 (%) | 신뢰도 (α) |
|-------------|--|--------|------|--------|----------|---------|
| 요인 1 심미성 | ·나에게 옷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 .812 | 5.59 | 16.33 | 16.33 | 0.88 |
| | ·나는 옷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 .800 | | | | |
| | ·옷에 관련된 많은 일에 흥미를 느낀다. | .737 | | | | |
| | ·남이 나의 옷차림에 대해 칭찬할 때 기쁨을 느낀다. | .721 | | | | |
| | ·멋있는 옷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 .692 | | | | |
| | ·나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본다. | .655 | | | | |
| | ·나는 옷을 사지 않더라도 옷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 .653 | | | | |
| |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 .619 | | | | |
| |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540 | | | | |
| 요인 2 과시성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유명상표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815 | 4.66 | 12.38 | 28.71 | 0.86 |
| | ·적어도 밖에 나갈 때 남이 인정해 줄만큼 좋은 상표의 비싼 옷을 입고 싶다. | .774 | | | | |
| |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입은 옷이 비싼 상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관심을 더 갖게 된다. | .750 | | | | |
| | ·값이 비싸더라도 품위 있어 보이는 옷을 좋아한다. | .746 | | | | |
| | ·명성 있는 상표의 옷은 입은 사람을 품위 있게 보이게 한다. | .745 | | | | |
| | ·디자인이 유사할지라도 가격이 싼 것보다는 잘 알려진 상표의 것을 산다. | .649 | | | | |
| 요인 3 정숙성 | ·비치는 옷은 점잖지 않다고 생각한다. | .788 | 2.82 | 9.87 | 38.58 | 0.81 |
| | ·신체를 많이 노출시킨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행할 때 창피한 느낌이 든다. | .777 | | | | |
| | ·노출이 심한 옷을 태연하게 입는 것은 정숙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 .748 | | | | |
| | ·몸에 꼭 끼이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민망해 진다. | .714 | | | | |
| | ·목이 너무 파져 가슴이 들여다보이는 옷은 입지 않는다. | .591 | | | | |
| 요인 4 편안성 | ·착용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옷이 좋다. | .816 | 2.07 | 7.90 | 46.48 | 0.73 |
| | ·옷을 이루는 신체적인 편안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814 | | | | |
| | ·옷을 살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산다. | .586 | | | | |
| | ·활동하기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 .549 | | | | |
| 요인 5 동조성 |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품질의 옷을 선택하고 싶다. | .801 | 1.61 | 7.70 | 54.18 | 0.72 |
| | ·옷을 선택할 때 내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 .730 | | | | |
| |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옷을 모방한다. | .668 | | | | |
| | ·모임에서 친구들과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 .647 | | | | |
| 요인 6 개성 |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겠다. | .882 | 1.32 | 6.06 | 60.24 | 0.84 |
| |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옷은 그냥 입는다. | .858 | | | | |
| | | | | | 60.24 | 0.78 |

3) 체중조절 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

체중조절 행동에 대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만 우려형, 체중관리형, 무관심형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2.47%로 <표 4>와 같다.

요인 1은 비만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비만 우려형’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은 31.0%(고유값=5.99)를 설명하여 신체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자신의 신체 및 체중관리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체중 관리형’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30.3%(고유값=1.97)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신의 신체관리에 관심이 없는 문항으로 ‘무관심형’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11.17%(고유값=1.7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3$ 로 나타났다. 이들 체중조절 행동을 구성하는 3요인의 총 설명력은 72.47%로 나타났다.

3.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심미성과 과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위차원의 외모관리였다. 즉 외모관리를 잘 할수록 의복의 심미성과 과시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주영(2003)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정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 자신감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이 없을수록 정숙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성, 동조성, 개성은 신체이미지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주영(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 자신감이 있을수록, 유행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 대상이 20대 여자 대학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창 아름다움을 추구할 나이인 여대생들은 편안한 의복보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체중조절 요인분석 결과

| 요인 | 측정문항 | 요인 부하량 | 고유값 | 분산 (%) | 누적분산 (%) | 신뢰도 (α) |
|------------------------|--|--------|------|--------|----------|------------------|
| 요인 1 비만 우려형 | ·타인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 .851 | 5.99 | 31.00 | 31.00 | 0.86 |
| |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쯤까봐 걱정 한다. | .850 | | | | |
| |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한다. | .759 | | | | |
| | ·나는 항상 비만을 우려하고 있다. | .665 | | | | |
| |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칼로리를 신경 쓰게 된다. | .581 | | | | |
| 요인 2 체중 관리형 | ·나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다. | .889 | 1.97 | 30.30 | 61.30 | 0.85 |
| |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려고 강력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 | .823 | | | | |
| | ·나는 비만 전문 관리센터를 다녔거나 다닐 의향이 있다. | .803 | | | | |
| | ·나는 절식 혹은 단식 등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 .775 | | | | |
| |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 .759 | | | | |
|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 .630 | | | | | |
| 요인 3 무관심형 |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은 아니다. | .836 | 1.75 | 11.17 | 72.47 | 0.63 |
| |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 .770 | | | | |
| 계 | | | | | 72.47 | 0.86 |

<표 5>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인 | B | β | t | F | R ²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심미성 | -.002 | -.002 | -.045 | 62.385*** | .385 |
| | | .014 | .022 | .440 | | |
| | | .569 | .617 | 12.557***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과시성 | .107 | .119 | 1.863 | 9.384*** | .086 |
| | | .047 | .062 | 1.043 | | |
| | | .207 | .119 | 3.325***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정숙성 | -.160 | -.167 | -2.552** | 4.460** | .043 |
| | | .082 | .103 | 1.673 | | |
| | | -.105 | -.094 | -1.540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편안성 | -.032 | -.043 | -.652 | .590 | .006 |
| | | .038 | .062 | .989 | | |
| | | .046 | .054 | .858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동조성 | .053 | .068 | 1.031 | 2.304 | .023 |
| | | .056 | .087 | 1.402 | | |
| | | .041 | .046 | .735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개성 | .139 | .133 | 1.996 | 1.351 | .013 |
| | | -.029 | -.033 | -.532 | | |
| | | -.042 | -.034 | -.549 | | |

p<.01, *p<.001

2) 기성복 만족·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체 이미지가 기성복 만족·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성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 자신감과 외모관리였다. 즉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기성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 만족이었다. 기성복 만족 요인과는 반대로 신체에 만족하지 못 할수록 기성복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신체 자신감이 있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기성복에 만족하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 할수록 기성복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성복은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이 있고 날씬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은 잘 맞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 이미지가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신체이미지가 기성복 만족·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인 | B | β | t | F | R ²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기성복 만족 | .117 | .248 | 4.310*** | 35.166*** | .261 |
| | | .039 | .099 | 1.845 | | |
| | | .172 | .316 | 5.856***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기성복 불만족 | -.084 | -.113 | -1.767 | 8.790*** | .081 |
| | | -.120 | -.193 | -3.207*** | | |
| | | -.056 | -.065 | -1.087 | | |

***p<.001

비만 우려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 만족, 외모관리이었다. 즉 자신의 신체가 만족하지 못 할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체중에 대해서 비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 만족, 외모관리이었다. 즉 신체가 만족하지 못 할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체중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

의 신체 자신감과 외모관리였다.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에 만족하지 못 할수록 비만을 우려하고,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영(2003)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 자신감이 없을수록 무관심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대상이 젊은 여자대학생이라 다른 것이라 판단된다.

<표 7>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인 | B | β | t | F | R ²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비만 우려형 | -.020 | -.017 | -.296 | 36.371*** | .267 |
| | | -.472 | -.477 | -8.885*** | | |
| | | .405 | .295 | 5.492***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체중 관리형 | -.019 | -.017 | -.281 | 22.663*** | .185 |
| | | -.395 | -.422 | -7.458*** | | |
| | | .221 | .170 | 2.999** | | |
|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 | 무관심형 | .145 | .137 | 2.085* | 2.927* | .029 |
| | | .030 | .034 | .543 | | |
| | | -.185 | -.151 | -2.437* | | |

*p<.05, **p<.01, ***p<.001

5. 신체이미지와 체중조절 행동이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

신체 이미지와 체중조절 행동이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신체 이미지 중 체중조절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 자신감과 신체 만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운동과 사우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단식과 식이요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신체이미지와 체중조절 행동이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독립변수 | 종속변인 | B | β | t | F | R ² |
|----------------|-----------|----------|-------|----------|-----------|-----------|----------------|
| 신체 이미지 | 신체 자신감 | 운동 | .279 | .216 | 3.301*** | 3.957** | .038 |
| | | 사우나 | .136 | .125 | 3.746* | 4.361* | 0.42 |
| | 신체만족 | 단식 | -.250 | -.234 | -3.821*** | 5.039** | .048 |
| | | 식이요법 | -.243 | -.228 | -3.732*** | 5.489*** | .052 |
| 체중 조절 행동 | 체중 관리형 | 운동 | .116 | .227 | 2.749** | 12.694*** | .113 |
| | | 단식 | .187 | .396 | 5.023*** | 24.129*** | .195 |
| | | 사우나 | .075 | .180 | 2.107* | 5.857** | .055 |
| | | 식이요법 | .144 | .296 | 3.713*** | 20.943*** | .174 |
| | 무관심형 | 여러 가지 병행 | .131 | .268 | 3.355*** | 20.451*** | .170 |
| | | 운동 | -.084 | -.155 | -2.765** | 12.694*** | .113 |
| | | 사우나 | -.069 | -.158 | -2.725** | 5.857** | .055 |
| | | 식이요법 | -.072 | -.139 | -.565* | 20.943*** | .174 |
| | 여러 가지 병행 | -.079 | -.152 | -2.796** | 20.451*** | .170 | |

*p<.05, **p<.01, ***p<.001

이것은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이 있고, 신체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단식과 식이요법으로 단 시간에 체중조절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중조절 행동이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체중관리형과 무관심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운동, 단식, 사우나, 식이요법, 여러 가지를 병행하여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중 조절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운동, 사우나, 식이요법, 여러 가지 병행 등 어느 것으로도 체중조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체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자신의 체중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름다운 신체이미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신체 이미지나 체중을 부단히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 기성복 만족·불만족,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이미지에 관련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신체 자신감, 신체 만족, 외모관리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고, 의복행동에 관련된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는 심미성, 과시성, 정숙성, 동조성, 편안성, 개성의 6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행동에 관련된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는 비만 우려형, 체중관리형, 무관심형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심미성, 과시성, 정숙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심미성과 과시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정숙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이미지가 기성복 만족·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신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기성복에 만족하였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기성복에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신체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과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비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체중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자신감이 있거나 외모관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체중조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체 이미지와 체중조절 행동이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운동과 사우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단식과 식이요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조절 행동이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체중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운동, 단식, 사우나, 식이요법, 여러 가지를 병행하여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중조절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운동, 사우나, 식이요법, 여러 가지 병행 등 어느 것으로도 체중조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여자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기성복 만족·불만족, 체중조절 행동과 방법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신체 이미지에 따라 의복행동, 기성복 만족도, 체중조절 행동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류제조 업체들은 이와 같은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 기성복 만족도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미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의복을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치수만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특징을 파악하여 신체 이미지별로 선호하는 디자인, 활동하기 편한 기성복 제작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므로 전국의 여자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주제어: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체중조절

참 고 문 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권수애, 김인화. (2005). 중년 여성을 위한 마담브랜드 기성복의 재킷 치수체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53-663.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미옥, 장은재. (2009). 연령별 비만에 대한 인식 및 체중 조절에 대한 태도.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2(1), 110-122.
- 김영인. (1980).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 13-19.
- 김완석, 김혜진. (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 광고**, 6(3), 27-40.
- 김은애, 이명희. (1992).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지다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문화학회지**, 18, 269-281.
- 박혜선, 김화순. (1998). 신체이미지, 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 중심으로-. **한국복식문화학회지**, 7(5), 68-79.
-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욕욕구(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중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신주동, 최종명. (2008).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305-318.
- 이금실, 정미실, 김광경. (2001).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9), 95-102.
- 이영윤.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 이주영. (2003). 중년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 조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53(3), 165-180.
- 조선진. (1997). 의복태도와 의복구매동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872-881.
- 조윤주, 이정란. (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 차진희, 김재숙. (1995). 성역할의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5), 738-746.
-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접 수 일 : 2010. 06. 01.

수정완료일 : 2010. 08. 04.

게재확정일 : 2010. 08. 10.